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y/June 2007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7** printed pages and **1** blank page.



Text 1 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1

아래 글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 일부입니다. 학급의 반장인 엄석대는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아이들 위에 군림하다가 결국 담임선생님에게 그간의 비행이 들통나고 맙니다.

“박원하, 황영수, 이치규, 김문세 ……”

이어 담임선생님은 다시 여섯 명의 아이들을 불러냈다. 모두 번갈아가며 석대의 대리 시험을 쳐 준 우리 반의 우등생들이었다. 낮이 하얗게 질린 그 애들이 쭈뼛거리며 교탁 앞으로 나서자 담임선생님이 약간 풀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지난 한 달의 각종 시험에서 번갈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딴 이름을 써서 낸 걸 알고 있다. 어쩔래? 맞고 입을 열래? 좋게 물을 때 바로 델래? 그게 누구야? 누구와 시험 점수를 바꾼 거야?”

5

그런데 담임선생님의 그 같은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때껏 초점을 잃고 반쯤 감겨져 있던 석대의 눈이 번쩍 치켜 떠지며 갑자기 무서운 빛을 뿜었다. 들고 있는 팔의 무게로 처져 있던 그의 어깨도 어느새 꼳꼳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걸 본 아이들이 움찔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다. 아이들은 이미 석대가 약한 걸 보았고 따라서 서슴없이 강한 담임선생님을 택했다.

10

“엄석답니다.”

아이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대답하자 석대는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분명히 석대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나는 몸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음 소리를 들은 듯했다.

15

“좋아. 그럼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황영수부터 말해 봐.”

담임선생님은 한층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달래듯 말했다. 매를 축 늘어뜨리고 말하는 폼이, 너희들은 바로 대답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았다. 거기 희망을 건 아이들이 석대의 존재는 거의 무시한 채 제각기 이유를 댔다. 때릴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위반으로 걸어 벌주기 때문에, 놀이에서 따돌림받기 싫어 따위, 대개 나도 겪은 이유들이었다.

20

“그래, 그동안 기분이 어땠어?”

담임선생님이 다시 그렇게 물었다. 이번에도 아이들은 숨김 없이 속을 털어놓았다. 잘못했

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가 절반, 선생님께 들킬까 봐 겁났습니다가 절반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담임선생님이었다. 마지막 아이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표정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 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녀석들이 …… .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 . 모두 교단 위에 손들고 꿇어앉아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30

담임선생님이 드디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선 것은 그 여섯이 눈물로 범벅진 얼굴이 되어 교단 위에 나란히 꿇어앉은 다음이었다.

35

“지금껏 선생님이 알아낸 것은 석대와 저 아이들이 시험지를 바꾸어 공정한 채점을 방해한 것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 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된 지난날부터 정리돼야 한다. 내 짐작으로는 그 밖에도 석대가 한 나쁜 짓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1번부터 차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이나 석대에 게 당한 괴로운 일들을 있는 대로 모두 얘기해 주기 바란다.”

40

이번에도 시작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다시 눈을 홉뜨고 쏘아보는 석대의 눈길에 흠칫해진 아이들이 머뭇거리자 그 목소리는 이내 날이 섰다.

“오 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작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 들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때 아무도 석대의 잘못을 써 내 주지 않아 이 학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계속해 석대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석대의 댄 잘못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이제 시험지 바꾼 일의 벌은 끝났으니 나머지는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다시 석대에 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좋겠나? 1번 우선 너부터 말해봐.”

45

그 말은 금세 효과를 냈다. 실은 아이들도 내가 늘 알았던 것처럼 맹탕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 힘을 합칠 줄 몰랐을 뿐, 마음속에서 불태우던 분노와 굴욕감은 한참 석대와 맞서고 있을 때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분명했다.

50

“석대는 내 연필깎이를 빌려 가 돌려주지 않았습시다. 단속 주간이 아닌데도 쇠다마(구슬)를 뺏어 가고 …… .”

1번 아이가 그렇게 입을 열자 2번 애도 아는 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붓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석대의 비행(非行)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그런 것을 고발하는 아이들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선생님만 쳐다보고 머뭇머뭇 밝히다가 한 번호 한 번호 뒤로 물릴수록 차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눈을 번쩍이며 쏘아보는 석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마’ ‘새끼’ 같은 전에는 감히 입 끝에 올려보지도 못한 엄청난 욕들을 섞어 선생님에게 고발한다기보다는 석대에게 바로 퍼 대는 것이었다.

55

4

- 1 Passage 1 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에는 가능하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 + 5 = 25$ 점입니다.)

- (a) 석대의 대리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2]
- (b) 3줄에서 애들이 '낮이 하얗게 질린' 까닭은 무엇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
- (c) 8-9줄에서 석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1]
- (d) 30줄의 '불의한 힘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에서
- (i) '불의한 힘'은 무엇을 뜻합니까? [1]
- (ii) '불의한 힘앞에 굴복'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
- (iii) 선생님 생각에 정말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2]
- (e) 39줄의 '그릇된 지난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십시오. [1]
- (f) 오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속해서 석대를 믿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1]
- (g) 49줄에서 '내가 늘 알았던 것처럼 맹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십시오. [1]
- (h) 석대의 비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위 본문에서 찾아 자신의 말로 요약하십시오. [5]
- (i) 이 글 전체에서 석대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약하십시오. [4]

Text 2 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Text 2

이 글은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몽달 씨라는 별명을 가진 원미동 시인은 젊은 남성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형, 김형 …… 도와 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찍어눌렀다.

5

“이 짜식,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 번 맛 좀 볼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깐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 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감잡쌀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10

“이 짜식,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겟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15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별경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선 불리 끼어들지 않고서 당하는 몽달 씨의 처참한 꼴에 혀만 꼰꼰 차고 있었다.

20

25

우람한 체구의 지물포 주씨 아저씨는 마침 자기 가게 앞을 끌려가고 있는 몽달씨의 꼴을 보고는 넵다 소리를 질렀다.

“죄가 있으면 경찰을 부를 일이지 무신 일로 사람을 이리 패노? 보소! 형씨, 그 손 못 놓나?”

투박한 경상도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자 녀석도 약간 주춤했다.

30

“아저씨는 상관 마쇼! 이런 놈은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된다구요.”

“누가 뭐라 카노. 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당신네들이 사람 두드려 가며 경찰서까지 갈 것 없다. 일 분 안에 오토바이 올 테니까.”

“이 아저씨가 …… 이 짜식,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니 이러지. 이 착한 청년이 무신 죄를 졌다꼬 이래 반 죽여놨노? 무슨 일이라?”

35

그제서야 빨간 셔츠가 슬그머니 움켜쥔 머리칼을 놓았다. 몽달 씨가 비틀거리며 주씨 곁으로 도망쳤다.

”아무 잘못도 …… 없어요 …… 지나가는 사람 잡아 놓고 …… 느닷없이 때리는데.”

더듬더듬, 입 안에 괴어 있는 피를 뱉어 내며 간신히 이어 가는 몽달 씨의 말을 듣노라고 주씨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이 잘못이었다. 멀찌감치 서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40

“어어, 저 봐요. 저 사람들 도망쳐요!”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언제 왔는지 김 반장이 발을 구르며 흥분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잡으려 갈 듯 몸을 솟구치는 꼴이 가관이었다.

45

“세상에, 경찰서로 가자고 그리 당당하게 굴더니 도망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골라잡아 팬 거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정말 도둑이나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여기는 가게들이 많아 환하니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실컷 썰러고 수작을 벌였군.”

50

“아까 보니까 저 뒷길에서 이 총각이 그냥 지나가는데 불러 놓고 시비드라구요. 아휴, 저 총각 너무 많이 맞았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모여 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조금 아까까지도 텅 비어 있다시피 한 거리였는데 언제 알았는지 이집 저집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몽달 씨를 기웃거렸다. 참말이지 쥐어뜯긴 머리칼하며 길바닥을 쓸고 온 옷 꼬락서니, 그리고 피범벅이 된 얼굴까지 영락없이 몽달귀신 그대로였다.

55

“무신 놈의 세상이 이리 험악하노. 이래서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주씨가 어이없어 하는데 또 김 반장이 냉큼 뛰어 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저놈들을 잡아 넘겼어야 하는 건데 …… 좀 어때?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어서 집으로 가세. 내가 데려다 줄게.”

60

김 반장이 몽달 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세상에 벨도 없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몽달 씨는 김 반장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갔다.

- 2 Passage 1 과 Passage 2 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짝을 지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십시오.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